

예술가와 친구들

그림 그려 무좀 설명한 지석철...이탈리아 약사 “유레카!”

황인
미술평론가



지석철은 1953년 마산 신월동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부터는 장군동에서 살았다. 부친은 동양주정을 운영했다. ‘지부자’하면 마산 최고의 재력가로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군동 집은 당시 마산에서 가장 큰 주택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대문까지 사철나무가 무성하여 사람들은 ‘사철나무집’이라 불렀다. 마당의 장미 넝쿨 아치가 이채를 띠었다. 인근 마산여고·성지여고·제일여고 여학생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대문을 뚫고 열고 집 구경을 하고 싶어했다.

칠 남매의 막내인 지석철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 불렀다. 해마다 열리던 마산 향토제 행사의 하나로 음악대회가 있었다. 완월국민학교 5학년 지석철 소년이 출전했다. 매일 생계란 두 개를 먹으며 맹연습을 했다. 성지여고에서 열린 예선전에 남학생은 여덟 명이 출전했는데 유일하게 지석철만이 본선이 올랐다. 결선은 3·15 회관에서 열렸다. ‘동근달’을 부르는데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관객의 응원을 이끄는 어른 같은 몸짓이 나왔다. 그제 감점 요인이 되어 2등 상으로 만족해야 했다.

대표작 ‘반작용’ 시리즈, 극사실주의 특징

마산중학교에 진학하니 미술 교사로 이상갑이 있었다. 이상갑(1920~1996)은 동경제국미술학교 서양화와 출신이었다. 그는 선전과 동경 독립전에서 활약했는데 중앙화단과는 떨어져 마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석철은 마산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마산 집에서 구마산 이상갑의 화실을 오가며 따로 그림을 배웠다. 이상갑의 현대미술원 화실은 부림시장 앞 골목에 있었다.

이상갑은 과묵하고 단정한 엘리트였다. 마산 어시장에서 일하는 아낙네를 많이 그렸다. 이상갑은 물감을 아주 조금씩 덜어 썼다. 그런데도 양감, 질감을 다 풍부하게 표현했다. 거친 마티에르를 걷어내고 부드러운 파스텔 톤 느낌의 화화를 구현한 이상갑의 작업은 소년 지석철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몇 년 후 청년 지석철은 최소한의 물감층으로 사물 내부의 심층을 끌어 올린 작품 ‘반작용’ 시리즈로 유명해졌다. 스승 이상갑의 영향이 여전했다.

1971년, 지석철은 홍익대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동기로 박남신·김강용·신중덕·이석주 등이 있다. 여러 구기 종목에 능했고, 키가 컸기에 혼자서 농구대 앞에서 열심히 공을 던지곤 했다. 실기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지석철은 흥대 정문에서 극동방송으로 가다 보면 있는 ‘카타리나’에서 핑크 플로이드와 레오나르드 코헨을 들으며 히피 문화에 빠져들었다. 카타리나의 손님들은 주로 이대·서강대·서울대에서도 유별나게 감성이 앞섰던 학생들이었다. 흥대 근처인데도 흥대생은 별로 없었다. 어쩌다 박남신이 확 나타났다 사라졌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기다리는 동안 지석철은 마산 한성다방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20호짜리 투게와 100호짜리 누드 등 많은 작품을 걸었다. 전시를 보러 대학 친구인 박남신·김강섭·이상남·이일(화가) 등 많은 남녀 학생들이 마산으로 왔다. 이때 선배인 이두식·손혜경 부부도 축하 차 마산에 왔는데, 아예 지석철의 장군동 사철나무집에서 나흘을 보내었다. 지석철의 모친은 된장을 풀어 끓인 대구뽕집을 대접했다. 내륙 영주 출신 이두식은 이 황송한 음식을 틈만 나면 사람들 앞에서 되뇌었다. 따뜻한 환대 속에 모두가 즐거운 마산의 시간을 보내었다.

마산중 진학해 이상갑에 그림 배워
흥대 미대 입학 확남신 등과 교류
‘반작용’으로 중앙미술대전 석권

82년 파리비엔날레 한국대표 참가
김기린이 전시공간 문제 해결 도와
관객이 작품 흠쳐가 감시 세우기도



1 지석철은 1982년 파리비엔날레에서 미니 의자 100개를 이용한 작품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2 반작용(Reaction), 170x219.7cm, 캔버스에 유채, 2020. <사진 지석철>

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78년, 지석철은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 없는 장려상을 받았다. 사실상 서양화 부문 1등 상이었다. 이때의 출품작은 ‘반작용’이었다. 흥대 정문 앞 유정다방의 의사 쿠션가죽의 미세한 주름과 세월의 힘에 해진 표피를 색연필과 테라핀유로 세밀하게 그렸다.



1980년 이일 자택에서 지석철(왼쪽). 평론가이자 흥대 교수였던 이일은 제자 지석철을 매우 아꼈다.



1982년 10월, 파리비엔날레에 민정기와 함께 한국대표로 참가했다. 참가 작가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에 지석철은 크게 고무되었다. 출품작은 익숙한 평면 작업이 아닌 처음 시도해보는 설치작업으로 결정했다. 배나무 가지를 잘라 6×6×12cm 크기의 미니 의자 300개를 만들었다. 그로 리지화랑에서 개인전을 가지면서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설치 작업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 자신감이 생겼다.

부품 마음으로 파리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전에 파리비엔날레 측에 요구한 설치공간은 가로 10m였다. 그런데 행정착오였는지 지석철이 작품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 김창열의 자택을 찾아가서 하소연했는데 무망했다. 우왕좌왕하던 중 파리비엔날레의 현장인 파리지립근대미술관을 들른 김기린을 우연히 만났다. 지석철은 난감한 사정을 밝혔다. 김기린은 파리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잘 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예술감독의 배려로 프랑스관과 일본관 사이에 지석철을 위한 가로 10m의 공간을 줬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졌다.

미니 의자 100개를 벽 가까이 한 줄로 쭉 세웠다. 그트머리 가까이에 있는 의자 하나를 90도로

돌려 앞으로 내놓고, 미니 쿠션 위에 올렸다. 빨아서 낡은 듯 보이는 쿠션이었다. 오프닝이 열리던 날 의자 두 개가 사라졌다.

관람객이 슬쩍 훔쳐갔던 것. 다음날 여유분의 의자로 보충을 하긴 했지만 사태가 지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지석철은 항의했고 주최 측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작품 앞에 감시인을 세우기로 했다. 전시가 끝났을 때 감시인은 당시 덕분에 한 달 동안 일자리가 생겼고 돈도 벌 수가 있었다고 지석철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한 달 동안 전시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만난 작가가 영국 대표로 참가한 인도 출신의 아니쉬 카푸어(1954-)였다. 카푸어는 지석철의 의자 작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석철은 카푸어의 인도 특유의 냄새가 나는 안료 작업이 인상적이었다.

130개국이 참가한 파리비엔날레는 열 명의 우수작가를 선정하여 비엔날레가 끝난 이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구 순회전시회를 가졌다. 한국 대표 지석철과 영국 대표 아니쉬 카푸어 등이 선정되었다. 안타깝게도 지석철은 순회전까지는 직접 갈 수가 없었다.

파리비엔날레 슬라이드 전시 부문에는 박남신·김선 등이 참가했다.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 지석철은 박남신과 스페인·이탈리아·스위스·독일·벨기에 등지로 배낭여행을 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에 꼼꼼하게 사전준비를 한 박남신이 회계와 진행을 맡은 덕분에 여행은 순조로웠다. 문제는 지석철의 무좀이었다. 쉴 새 없이 걷다 보니 무좀이 점점 심해져 로마에 도착했을 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도 출신 카푸어, 지석철 작품에 관심
약국으로 갔다. 이탈리아어로 무좀약을 뭐라 하는지 모르는 건 당연지사. 지석철은 불편을 견내어 종이대에 발바닥을 그렸다. 마음이 절실했는지 그날따라 그림도 잘 그려졌다. 발바닥 그림위를 손가락으로 살살 간질이며 슬쩍 약사를 쳐다보았다. “유레카!” 유레카를 연호한 약사가 자신의 이마를 세계 치머 파안대소했다. 당시 말이 된지 알겠다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연고를 가져왔는데 이게 직방이었다. 두 청년의 여행은 무난하게 이어졌다.

1978년부터 널리 알려진 지석철의 작품 ‘반작용’ 시리즈는 극사실 작품이다. 한국 현대미술이 한동안 형상과 물성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단색화(70년대 당시는 모노크롬으로 불림)가 주도하던 물질 계열의 추상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지석철·고영훈·이석주·김강용 등 1970년대의 청년 세대는 물질 계열에 저항하듯 극사실(하이퍼 리얼리즘)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미 개념미술을 충분히 공부한 세대였다. 개념미술이 될 수 있는 대로 묘사를 배제하는 미술을 지향한다면, 이들은 지극한 노동을 동반한 손의 그리기 기능을 회복하려 했다.

지석철은 사물의 순간적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기실 그가 포착한 것은 사물의 존재를 지탱해온 오랜 시간이 뒹고 있는 평평한 밑도다. 홍익대 교수로 정년을 마쳤다. 최근 새로운 해석의 반작용 시리즈를 그리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과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1978년부터 널리 알려진 지석철의 작품 ‘반작용’ 시리즈는 극사실 작품이다. 한국 현대미술이 한동안 형상과 물성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단색화(70년대 당시는 모노크롬으로 불림)가 주도하던 물질 계열의 추상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지석철·고영훈·이석주·김강용 등 1970년대의 청년 세대는 물질 계열에 저항하듯 극사실(하이퍼 리얼리즘)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미 개념미술을 충분히 공부한 세대였다. 개념미술이 될 수 있는 대로 묘사를 배제하는 미술을 지향한다면, 이들은 지극한 노동을 동반한 손의 그리기 기능을 회복하려 했다.

지석철은 사물의 순간적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기실 그가 포착한 것은 사물의 존재를 지탱해온 오랜 시간이 뒹고 있는 평평한 밑도다. 홍익대 교수로 정년을 마쳤다. 최근 새로운 해석의 반작용 시리즈를 그리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과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1978년부터 널리 알려진 지석철의 작품 ‘반작용’ 시리즈는 극사실 작품이다. 한국 현대미술이 한동안 형상과 물성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단색화(70년대 당시는 모노크롬으로 불림)가 주도하던 물질 계열의 추상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지석철·고영훈·이석주·김강용 등 1970년대의 청년 세대는 물질 계열에 저항하듯 극사실(하이퍼 리얼리즘)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미 개념미술을 충분히 공부한 세대였다. 개념미술이 될 수 있는 대로 묘사를 배제하는 미술을 지향한다면, 이들은 지극한 노동을 동반한 손의 그리기 기능을 회복하려 했다.

지석철은 사물의 순간적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기실 그가 포착한 것은 사물의 존재를 지탱해온 오랜 시간이 뒹고 있는 평평한 밑도다. 홍익대 교수로 정년을 마쳤다. 최근 새로운 해석의 반작용 시리즈를 그리고 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과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 제 보 청 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